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노년시대

실버NEWS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101세 시어머니 병상서 대소변 살피는 효부

51년째 시어머니 봉양 마봉녀씨(72세)

칠순을 넘긴 나이에 홀로 51년째 시어머님을 모셔 마을 노인회 추천으로 대한노인회에서 효부상을 수상한 마봉녀씨(72세, 사진)가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북고성 봉수리 태생인 그녀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와 21살 때 죽왕면 문암 1리 출신인 김의지씨(76세)와 결혼해 3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마씨의 시댁은 문암 일대에서는 부를 축적한 가정이었다고 한다. 남편은 젊었을 때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자 땅을 많이 보유한 농촌가의 장남이었다.

가정풍습이 엄격한 가부장적인 가정

에 시집을 온 마씨는 농사일 등 잔일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살림으로 무척 바쁘게 살았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하셨던지, 그 때만해도 가정의 풍습이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엄하면서도 자신을 친딸처럼 다정다감하게 보살펴주던 시어머니(함순애, 101세)가 지난해 가을부터 앓기 시작하더니 올해들어 병상에 눕고 말았다.

이 때부터 마씨는 시어머니 대소변을 돌보며 지극 정성으로 병수발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인 지난 2007년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

장애와 신체 일부 마비 현상을 앓고 있다.

따라서 마씨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2명의 수발을 들고 있다.

“어찌겠습니까 내 업인걸요, 두 분 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업이라면 기꺼이 받아드리고 편하게 해 드려야지요.”

대·소변을 가리질 못하는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모시다보니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게 되자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러 온다.

마씨는 “근처에 사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 할머니의 병수발을 대신 해 주곤 한다”며 “어려움에 처 할수록 가족 모두가 푼돌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다”고 했다.

“힘들더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려야지요, 나의 어머니 업인걸요.” 박승근 기자



간성여성의용소방대 동호1리 효도잔치

속초소방서 간성여성의용소방대(대장 장명자)가 지난 3일 동호1리(이장 황봉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열었다.

간성여성의용소방대는 동호1리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회씩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0여명의 대원과 25명의 마을어르신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과를 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간성여성의용소방대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음식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마을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찾아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간성여성의용소방대 장명자 대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을어르신들에게 무료음식 나눔봉사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원들 모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우리마을 경로당 / 죽왕면 문암리

10년째 마을 어르신 40명 식사대접



이석송 회장

죽왕면 문암리 경로당은 1999년 8월 경로당으로 인가를 받아 2002년에 새롭게 단장했다. 2003년에는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각종운동기구를 설치해 건강 헬스장을 만들어 인기가 최고다.

문암1리 경로당은 마을주민들로부터 쌀과 밀반찬, 각종 야채류를 협찬받아 점심에 맞춰 평균 4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대접을 하고 있다. 10년째 김연숙 부회장



죽왕면 문암리 경로당 전경.

(78세, 여)이 출선수범으로도 맡고 있다.

문암 1리 경로당은 회원모두가 좋은 환경을 위해 공병을 자발적으로 모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주변 관광지 정화활동을 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고성군보건소 농번기 건강프로그램 일환으로 어

신들을 위한 맨손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암 1리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석송 회장(73세, 사진)은 “문암 1리 경로당은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다수의 상을 수상한 마을”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마을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지역 어르신을 공경합시다!

고성신문 지역사랑 캠페인